전국 교구본사서 단기출가학교 잇달아

통도사·동화사 수행형 출가체험
행자 삶 체험…묵언·청규 엄격
청년층 참가비 지원 등 참여 확대
수덕사 보살행학교 수행 정진 돌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출가절벽'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단기출가학교가 잇달아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6월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간 경내 일원에서 단기출가 프로그램인 '보궁 출가학교'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주제로 한 이번 출가학교는 단순한 사찰 체험을 넘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본래의 나를 마주하는 수행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번 출가학교는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과정인 '행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새벽 예불과 공양, 사찰의 육체노동인 운력(運力)을 비롯해 염불과 독경 등 실제 스님들의 수행 일과를 체험한다.

통도사 연수국 관계자는 "단기출가는 누군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내려놓아 보는 시간"이라며 "조금 덜 말하고 조용히 머무르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작은 힘을 얻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4월 1일 제2기 단기 선(禪)출가 프로그램인 '보살행학교'의 삭발식과 고불식을 봉행하고 9박 10일간의 수행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찰 내 규칙(청규)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전자기기 반납과 외부 연락 차단은 필수이며, 스님에게 질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묵언해야 한다. 도량 내 이동 시에는 두 손을 모으는 차수(叉手)가 의무화된다.

개인 간식, 흡연, 음주, 낮잠은 전면 금지되며 TV 시청과 외부 도서 반입도 제한된다. 세면과 세탁 등은 정해진 시간에 단체로 진행해야 하고, 의복은 무채색 계열만 허용된다. 단체 생활 규칙을 위반해 대중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퇴방 조치된다.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라도 입방 당일 스님들과의 대면 면접인 '갈마'를 통과해야 최종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전염성 질환자는 입교가 불가하며, 입방 후 부상 및 질병으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퇴방 처리된다. 만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으로, 16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40만원이다. 만 25세 이하 지원자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사찰에서 지원한다.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 및 기숙사 건강진단서(결핵, 간염)를 첨부해 이메일(templestay@tongdosa.or.kr)로 5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는 5월 21일 개별 통보된다. 055-384-7085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광 스님)는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제1기 무문(無門) 단기출가학교'를 진행한다.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출가를 희망하거나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 공동체 생활과 수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7세부터 60세까지 남녀 각 10명을 선발한다. 참가자들은 수행 기간 동안 예불과 참선, 울력 등을 통해 수행자의 삶과 공동체 생활의 의미를 체득하게 된다.

동화사 관계자는 "무문 단기출가학교는 수행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출가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라며 "현대인들이 일상 속 번뇌를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화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donghwasa.templestay.com) 참조. 053-980-7979

앞서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4월 1일 제2기 단기 선(禪)출가 프로그램인 '보살행학교'의 삭발식과 고불식을 봉행하고 9박 10일간의 수행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보살행학교에는 남행자 3명, 여행자 7명 등 총 10명이 입교했다.

행자들은 부모님과 불전을 향해 삼배를 올리며 출가의 각오를 다진 가운데 "때가 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라는 구절을 낭독하며 무상의 이치를 되새기고 발원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애착을 끊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잘라낸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이동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흙 속에 묻고 수행자의 삶을 서원했다.

조계종 제8기 종교평화위원회 출범

위원장 향문 스님 등 11명 2년간
홍주읍성 복원·사례집 발행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왼쪽)은 제8기 종평위원장 향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갈 조계종 제8기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제7기 위원장을 역임한 향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미황사 주지)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장에는 7기에 이어 향문 스님이 연임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우곡사 주지 석산 스님, 수덕사 율학승가대학원 율감 현중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 정혜 스님이 새롭게 합류했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재가 전문가들이 대거 연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평화는 불교계의 목표이자 사명"이라며 "덕망과 명성을 갖춘 위원들이 규칙을 지키고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며 부처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은 "이제 종교는 사회 통합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 역할로 상생과 존존의 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촉식 후 종평위는 2026년 제1차 회의를 열고 활동 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종평위는 올해 △종교평화 문화정착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홍주읍성 불교문화 복원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 발행 △종교용어 연구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NGO 공모에 14개 단체 선정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에서
500~2000만원 지원 받아

조계종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지속가능! 공공가치! NGO사업 공모'에 로터스월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14개 단체가 선정됐다.

자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공공가치!'를 기치로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은 불교적 자비 정신을 현대적 공공가치로 승화시키고 종교적 경계를 초월해 일반 NGO들과 연대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미래세대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가재울청소년센터 '데이터 가든'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나나극단' △자비신행회 '나르샤 토요배움학교'가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손으로 만드는 일상'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인.공' △안성시노인복지관 '마음채움학교' △영통장애인주간이용센터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 △화성시아르딤복지관 'Safe Money 아르미'가 뽑혔다.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시민과학으로 야생조류와 공존하는 전남광주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 '환경보살 기후학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에코스테이션'이, 국제개발·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더프라미스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구 유치원 재건 및 교육정상화 사업' △로터스월드 '라오스 동자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 △사단법인 코인트리 '스라랑카 청각장애 아동 여학생 성장 자립을 위한 수어 직업교육 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500~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임은호 기자**

비구니회원葬 본격 가동…상담 준비 완료

3월 26일, 20차 정기총회 개최
"비구니회 존재 피부로 와닿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3월 26일 서울 법륭사 만불전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국비구니회원장(葬)' 시행을 포함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노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봄부터 장례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평생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 온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 안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발원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전국비구니회원장 가동을 물론 홀로 지내는 노스님 관리를 위한 전화방문상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 회원 입회와 CM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원장 실행과 함께 의료비 지원자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와 장례봉행위원회, 전화방문상담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회원장 사업이 약화돼가고 있는 공동체 정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며 비구니회의 존재가 스님들에게 피부로 와닿길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사업도 구상 중"이라며 5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3월 26일 서울 법륭사 만불전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를 올해도 지속할 계획이다. '내 삶과 마음공부, 선수행'을 주제로 한 상반기 수행결사는 4월 6일 입재를 시작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등 스님, 본각 스님, 정목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하반기 수행결사는 '간화선의 이론과 실참'을 주제로 9월 7일부터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초청법사로 수경 스님이 나선다.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역사 바로 세우기 관련 사업도 진행된다. 4월 23일 주어사 법당터에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임은호 기자

3월 임시종회 폐회에 즈음한 정법회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는 3월 임시종회를 마무리하면서 제18대 중앙종회의 원활하지 못했던 운영에 대하여 모든 종도들에게 자성(自省)과 참회의 삼배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미래와 종단혁신을 위하여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이에 상응하는 종헌·종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밝힌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 혁신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오는 9월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조계종단이 어떤 가치와 시스템 위에서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다수 종도들은 현행 선거제도 운영 과정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승가공동체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 시기 여러 차례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종도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지만, 이를 종법으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종회의 대응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정법회는 우리 종단이 선거제도 개혁과 승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자 한다.

2. 종헌·종법의 전면 재·개정을 통한 종단운영체제의 혁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법회는 출범 초부터 1994년 개혁체제를 넘어서는 종단 시스템의 혁신을 위하여 종헌·종법 전면 개정을 위한 종단 차원의 공론화와 상설기구의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종헌·종법은 1994년 종단 개혁을 토대로 큰 틀이 성안된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이 반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적 정비 없이 주먹구구식 보완이 이어지며 법체계 간 짜임새가 무너지고, 규정 간 충돌과 해석의 혼선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헌·종법은 종단 운영의 근간이자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시대변화와 종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누적된 개정으로 인해 구조적 모순과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조항 정비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종단 운영 전반의 원리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면적 재·개정이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37대 종단집행부는 물론 중앙종회 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종책모임에서 이러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종헌·종법 개정을 통한 종단의 구조적 개선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종단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3.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개설할 것이다

정법회는 비록 우리의 종헌·종법 개정 제안이 현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정한 '종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넓은 종도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법회는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여 첫째, 승가 구성원 전체는 물론 재가불자, 청년불자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교구별 순회 좌담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교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다. 셋째, 전문 연구자들의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종책자료들을 취합하여 종도들의 뜻을 왜곡 없이 수렴하고, 이를 종헌·종법 개정과 한국불교의 혁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다.

정법회는 이번 입장표명이 한국불교의 혁신과 종단 발전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종단 전체의 공론장으로 확장될 때까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종도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종단의 주인은 승가대중이며, 종단의 미래는 종도들의 지혜와 결집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정법회는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모든 종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불기 2570(2026)년 4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 일동